

창 14:14-24 우리가 누구를 도울지 말지 저울질할 때, 대개 두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도움 받을 가치가 있나? 그리고 내가 손해 보거나 위험해지지 않나? 둘 다 OK 일 때, 우리는 기꺼이 돕습니다. 물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질문조차 없습니다. 두 질문중 하나라도 부정적이면, 우리는 대개 주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위해 찾을 때도, 우리는 도움 가치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가난한 게 분명, 아닌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도움 때도 싹박한 방법을 찾습니다. 자선단체에 돈을 보내거나, 단기선교 같은 건 가도, 자기 동네 노숙자들 먹이는 것같은 귀찮은 일을 피합니다.

아브람은 궁지에 빠진 롯을 구하러 갑니다. 롯은 아브람 도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롯을 구하려면 아브람은 보통 큰 위험을 무릎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은혜받은 자답게, 도움받을 자격없는 자를 위해 위험을 무릎씁니다. 그런 아브람에게는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오늘 아브람에게서 배우십시오. 아브람이 전쟁에 이겨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함께 배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창 14:14-24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기도)

아브람은 주변 사람들처럼, 단지 떠돌이 유목민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걸 입증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떠돌이중 하나로 뵈을 겁니다. 그러나 짧지만, 아브람이 가나안 땅 왕인 게 순간 드러납니다. 14 장은 고대 전쟁 얘기로 시작합니다. 두 연합군 전쟁 틈새에 끼어, 아브람의 조카 롯이 어쩌다 포로가 됩니다.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롯은 실은 물질적인 이익을 쫓다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약속의 땅과 아브람을 등지면서, 롯은 점점 더 몰락합니다. 그때마다 아브람이 돕지 않으면, 롯은 완전 망했을 겁니다.

롯 얘기는 세상과 단짝으로 어울리면서, 전혀 불편을 못 느끼는 성도들 warning sign 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롯처럼 이 세상에 편히 안주하면서, 쉽게 주변에 동화된 신자들이 많습니다. 외양간에 사는 사람에게서, 소똥 냄새 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 심판 받는 중에서,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 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악인들과 친밀히 어울리면서, 경건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돔에 내린 심판에서 거듭 구원받지만, 롯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롯 생포사건은 아브람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 시점에서 롯은, 아브람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대가 끊기면, 땅이고 재산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잡힌 롯을 내버려둬도, 롯은 아브람에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해 아브람을 떠났고, 경건한 혈육은 멀리하고 세속적인 타인과 살겠다고 떠났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롯을 구하려면 아브람은, 상당한 위험을 무릎써야 합니다. 아브람이 기습한 연합군 왕은 그돌라오멜입니다. 당시 대부분 도성마다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끼리 서로 경쟁해

종종 전쟁을 일으키고, 패배한 도성은 승리한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성경  
여기 밖에 기록이 없지만, 소돔을 비롯한 다섯 도성이 12 년간 조공을 바친 강력한 왕입니다. 그  
다섯왕이 연합해 조공을 거부하자, 그돌라오멜은 네 도성의 왕들과 연합해 다섯 도성을 칩니다.  
그렇게 소돔이 함락될 때, 롯도 포로가 됩니다.

롯을 구출하려고 아브람이 이끈 특공대 318 명은, 청동기 시대인 당시로는 적은 병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지, 직업 군인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를 대비해  
평소 훈련시켰어도, 아브람은 병력의 많고 적음에 전쟁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애굽에서 실패한 경험을 통해, 아브람이 터득한 게 있습니다. 삼상 14:6 "여호와와 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느니라."

롯은 구조할만한 가치있는 인물이 아닌 게, 롯 스스로 불속에 뛰어들었고, 게다가 롯 구출  
작전이 실패할 경우, 318 명과 아브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그런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아브람에게 중요한 건, 롯이 그의 혈육이고,  
자기 도움이 필요하단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롯을 구하러 나섭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 소유권 주장하려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의 상속자로, 억압받는 자기 백성을 구하러 나선 겁니다. 가나안 북쪽 끝 단까지 쫓아가, 네  
명 강력한 왕의 군대를 치고 다메섹까지 추격해, 롯과 소돔이 빼앗긴 모든 재물까지 되찾습니다.

롯을 구원하러 분연히 일어난 아브람에게는,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편히 앉아,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음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아무 위험 부담없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 친히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중 하나가 되실 뿐 아니라, 종의 약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억압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강력히 공의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공의 대신 평화, 제자들 칼을 버리게 하시고 당신을 도울 천군천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를 붙여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가치없는 당신 백성을 위해, 위험을 무릎썼고 십자가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공의와 평화가 만납니다, 멜기세덱처럼. 십자가는 주님이 우릴 사랑하신 증거일 뿐 아니라, 십자가 고통은 그럴 가치없는 자들, 심지어 배반하고 달아난 자도 품으신 겁니다.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실이 확증된 사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럴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또 돕다간 내 안락과 안전이 위험하단 이유로 돕기를 마달 수 없습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돕고 질문은 나중에 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저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은 안줍니다, 봐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사 줘도. 도와준 돈이 알콜이나 마약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돕는 사람을 최악된 습관에 머물게 할 뿐인 도움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울지 말지 기준은, 내 도움이 상대방에게 참 도움이 될 지를 따져야지, 자격이 있나 또 그걸로 내가 불편 겪지 않을까로 저울질하면 안됩니다.

이기고 돌아온 아브람을, 다른 종류의 싸움이 기다립니다.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왕이 찾아오면서 벌어진 영적 싸움입니다. 멜기세덱 뜻은 '나의 왕은 공의롭다.' 그리고 그가 다스린 성 살렘은 '평화'란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공의와 평화가 만난 것처럼, 멜기세덱이 신비하게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소돔왕은 가증스런 땅을 다스립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신분으로 아브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생명을 상징한 '떡과 포도주'를 주며 아브람을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승리주신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재'를 찬양합니다.

멜기세덱과 정반대로 소돔왕은 마지 못해 온 사람이 그렇듯, 사무적입니다. 아브람 덕에 소돔을 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데 대해, 아무 감사도 없습니다. 그 승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할도 인정치 않고, 업무적인 말만 합니다. “사람은 내가 가질테니, 재물은 당신 가지시오.” 얼마나 싹아지 않고 통명스럽습니까? 소돔왕은 아브람의 승리를 그저 인간적인 겉로만 보고, 인간적인 결과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해, 포획한 전리품의 십일조를 받는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소돔왕은 곧 재앙으로 멸망할 재물과 재앙의 원인이 된 사람들을 얻습니다.

아브람은 다가온 두 사람의 상반된 접근 방법중 어느 편을 따릅니까? 소돔왕의 접근방법에 문제있는 건, 믿음의 눈이 아니면 못 봅니다. 세상적인 눈에 아브람은 그저 개선장군입니다. 개선장군은 승리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모든 탈취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 덕에 부자되었다.’는 말 듣지, ‘하나님 덕에 부자되었다.’는 말은 못합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처럼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재’께 겸손히 복종하는 믿음의 길을 택할지, 소돔왕처럼 빨리 쉽게 부자되는 세상 길을 택할 지 갈림길에 선 겁니다.

모든 사람 시선이 재물이 어디로 가나에 집중할 때, 아브람은 승리주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믿음은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기보다, 의인들과 함께 너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는 쪽을 택합니다. 아브람은 전리품의 십일조를 바침으로, 그 승리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재’께로 온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이 누릴 권리인 탈취물 소유권조차, 소돔왕에게 돌려줍니다. 믿음은 악인에게서 받는 물질적 이득보다, 비록 눈에 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 축복을 택합니다. 롯과 달리 아브람은 구별된 길을 고지식하게 고수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 방식으로 약속하신 풍요 주실 걸 믿는 믿음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누구나 아브람 자리에 있다면, 강한 유혹을 느낄 겁니다. 지름길이 보이는데, 하나님 약속 당장 손에 넣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겁니다. 지금 약속의 땅 밟고 있죠. 그 땅 대부분에 백성까지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인간적으로 어리석어 봐도, 구원받을 자격없는 롯을 구하려고 칼을 빼 들었던 아브람이,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 어리석어 봐도, 뽑은 칼을 다시 뽑고, 주님이 그 땅 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열매를 따먹지 않고, 비록 기다리다 죽을망정,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당장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얼마나 대조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손쉽게 빨리 목적 이룰 방법을 그럴싸하게 보여줍니다. “성이 하나님 선물이라면, 그리고 두 사람이 진정 사랑하면 성을 결혼이란 울타리에 가둘 필요 어딴어? 인생은 짧아 당장 즐겨.” 그렇게 속삭입니다. 직장에서는 “모두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데, 무슨 충성이야.” 속삭입니다. 캠퍼스에서는 “A 받으려면 동성애 찬성 paper 써야지, 신앙이 해준게 뭐야 불편만 주지.” 속삭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 축복을 놓치지 않으면서, 살짝 지름길로 새치기하고 싶은 유혹은 주변에 얼마든 널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런 논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애굽 경험에서 잘 배웠고, 그래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아브람은 형통한 그 순간에도, ‘지극히 높은 천지의 주재’께 나갈, 자기보다 위대한 인물 멜기세덱을 알아봅니다. 멜기세덱에게서 단번에 당신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임을 아브람은 압니다. 아브람처럼 우리 역시 패배의 순간뿐 아니라 승리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를 범할 때뿐 아니라, 큰 시련을 당당히 물리칠 때도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죄와 의로움 모두 당신의 온전한 의로 바꾸십니다. 주님 입히신 의의 옷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유일한 옷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최선을 다해도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무가치한 종'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재'의 기뻐하심을 입습니다. 오늘은 497 주년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모토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대 교회는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탄식이 가득합니다. 또 교회 구조를 바꿀까요? 아닙니다. 아브람처럼 '오직 은혜'로 하나님 때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구하는 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오직 주님 은혜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